

2024 대한민국 헌혈공모전(수혈 수기)

제목	피할 수 없지만, 피할 수 있는
<p>아빠는 예고도 없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. 70을 바라보니, 아픈 곳이 하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, 술과 담배와 벳하신 분치고는 건강한 편이셨다. 한두 달 전쯤 부터 눈이 흐릿하다,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는 말씀을 자주하곤 했다. 안과에선 어떤 이상 증상이 없는데, 흐릿하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뇌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. 하필 뇌라니 엄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. 친정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. 아빠의 얼굴이 노랗게 변해있었다.</p>	
<p>“황달이네. 황달.”</p>	
<p>“황달?”</p>	
<p>“아빠 얼굴을 봐봐. 노랗잖아. 손도 노랗고. 내과 가서 피검사 해봐요.”</p>	
<p>나는 의사라도 되는 양 진단명까지 확실하게 못 박았다. 아빠와 엄마도 내 말에 수긍하는 눈치였다. 10여 년 전 동생이 황달로 고생했을 때 얼굴과 비슷했기에 나는 확신했다. 하지만, 의사 놀이는 거기서 끝났다.</p>	
<p>“피검사 결과 나왔는데, 수치가 안 좋다고 진료의뢰서 써줬어. 대학병원 가보라고.”</p>	
<p>그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겠거니 했다.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다.</p>	
<p>“소고기 파네. 소고기나 구워 먹고 가자.”</p>	
<p>“아빠, 병원 갔다가 치료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기 먹어요. 병원 가서 고기 냄새 풍기는 것도 민폐예요.”</p>	
<p>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곧 알 수 있었다. 진료의뢰서를 받자마자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에게 서류를 전달하며 낯빛이 변했다. 그리곤 우리에게 와서 물었다.</p>	
<p>“어지럽지 않으세요? 서 있을 수 있겠어요?”</p>	
<p>아빠는 괜찮다고 했지만, 간호사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다.</p>	
<p>“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.”</p>	
<p>“백혈병이요?”</p>	
<p>“우선, 당장 수혈부터 받으셔야 합니다.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.”</p>	
<p>예상치 못한 시한부 진단에 우리는 모두 멍했다. 그러나 더 황당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.</p>	
<p>“아시겠지만, 요즘 코로나로 헌혈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 가족 중에서 B형이 있으시면, 수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”</p>	
<p>“우리 가족 중엔 B형은 없어요. 제가 O형인데, O형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, 제가 할게요.”</p>	
<p>“같은 B형만 가능하세요. 다른 가족들에게라도 부탁해 보세요.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.”</p>	

우리는 발을 동동 굴리고만 있었다.

헌혈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. 같은 학년에 있던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, 학교에선 헌혈증을 모아 주기로 했다. 헌혈증이 집에 있는 친구는 거의 없었다. 다행히 우리는 헌혈할 수 있는 나이였고, 호기롭게 학교 근처 헌혈의 집으로 향했다. 먼저 헌혈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, 혈액형은 무엇인지 검사가 이어졌고, 헌혈을 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을 땐 두려움이 몰려왔다. 바늘의 두께를 보는 순간 친구고 뛰고 나 몰라라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. 바늘이 몸에 들어갈 땐 눈을 질끈 감았다. 애개? 바늘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다. 오히려 혈액형을 알아보기 위해 찔렸던 바늘이 더 아팠을 정도였다. 이 정도면 또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다. 그때부터 짧게는 두 달에 한번 길게는 일년에 한번 헌혈을 시작했다.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단, 짧은 시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였다. 그리고 영화를 공짜로 볼 수도 있고, 맛있는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. 하지만, 그런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, 바로 아빠였다. 아빠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, 이상하게도 헌혈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셨다.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, 매혈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었다. 어려운 형편에 피를 뽑았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. 그런다고 하지 않을 내가 아니었다. 하지만, 의도치 않게 헌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, 집 근처에는 헌혈의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. 그래서 헌혈을 할 수 있는 부모님 댁에 갈 때면 가끔 헌혈하곤 했는데, 아빠는 그때도 늘 같은 반응이었다.

“무슨 피를 자꾸 뽑아. 쫓.”

그랬던 아빠가 자신이 백혈병에 걸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. 아빠는 항암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, 수혈을 받으며 연명치료를 이어갔다. 1년 반 동안 아빠는 수십 혹은 수백 명이 헌혈한 피를 수혈받으며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. 나는 아빠에게 자주 말했다.

“헌혈하지 말라더니, 아빠가 이렇게 수혈받을 줄은 몰랐죠?”

아빠는 멧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. 아빠는 그 시간동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시며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해오셨다.

아빠는 이제 수혈받지 않아도 된다. 작년 꽃이 피기 전 아빠는 소풍을 마치셨다. 아빠의 병실에 마지막 뵙는 그날까지도 빨간 피가 아빠 몸속으로 흐르고 있었다.



백혈병 투병중이신 아버지